

# “의견 들읍시다” 주민 찾은 군의원들

### 완도군의회, 10일간 6개 읍·면 순회 55건 수렴...20건 해결·35건 검토중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군민들을 직접 만나 의회 운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읍면 순방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완도군의회(의장 김정술)는 25일 “지난 4일 제21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 뒤 어려운 기상여건에도 10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6개 읍면 순회 방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순회 방문은 완도읍을 시작으로 소안면, 보길면, 노화읍, 군외면, 청산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읍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의원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의회가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균형 감각을 갖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회 방문에서 김 의장 등 의원들은 2014년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해조류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완도읍 시가지 맨을 주위 뒷썩우기 공사 등 55건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20건은 즉시 해결됐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35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건의에



최근 완도읍 학림아파트 옹벽 붕괴 방치공사 현장을 찾은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발주부서인 건설방재과 담당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따라 집행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들 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부실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현장에서 부실이 드러나면 집행부에 강력하게 질책하겠

다”며 “해조류 박람회 주제관 건립 공사나 완도항 등 완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 문제를 예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 진도 고군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 실시

진도군이 고군농공단지 잔여 부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한다.

고군농공단지 분양필지 총 18개 블록 중 15개 블록은 현재 분양돼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3개 블록은 미분양 상태다. 이번에 분양하는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 10만671㎡ 중 공장용지 1만5439㎡로, 분양 가격은 m당 2만900원이다.

군은 7월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7월20일까지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park@

## 영광 대마산단 800억대 기업유치

### 소재 산업·식품 가공기업 등 투자협약

전남도가 영광군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재 산업, 기구·장비, 식품 가공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했다.

전남도는 25일 오전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씨스톤 등 9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8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며 고용 규

모는 500명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씨스톤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234억원을 투자, 반도체와 연료전지 부품을 생산한다.

고려바잠트는 200억원을 투자, 중간산업체인 바잠트를 생산한다.

뉴다안과 동명은 총 200억원을 투자해 각각 불연 건축자재와 불연 자동차, 선박 단열재를 생산한다. 씨티아이월드는 에너지 절감기구

와 보안시스템, 제어엔지니어는 주방기구, 거북은 고추기름, 제이와이베드는 매트리스, 하나식품은 과자류를 생산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투자협약식에서 “소재산업, 기구·장비, 식품 가공 등은 전남의 여건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분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갖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힘써 달라”며 “도와 군에서도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 농·수산 육성 ‘잘사는 해남’ 기틀

### 해남군

박철환 해남군수(사진)는 25일 “민선5기 3주년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활기찬 해남’, ‘잘사는 해남’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박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친환경대상과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군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실적을 내놨다. 실제로 해남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모두 91개 부문 우수기관 수상과 사업비 67억원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 정부공모사업에 집중해 결과 지난 2011년 19건에 국비 78억원, 2012년 21건에 국비 73억원, 2013년 상반기 9건에 78억원을 지원받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농업소득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내 실화를 다지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가공산업 기반 구축 등 3대 시책도 내놓았다.

지난달 고구마 가공공장을 시작



### 91개 부문 ‘우수 기관상’

### 회원관광단지 해법 시급

으로 무화과와 미백, 고품질쌀, 밤호박 등 주요 특산물의 가공식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설립도 준비 중이다. 수산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김 양식 육성으로 역대 최고 물김 위판고를 기록했으며, 해수면과 내수면에 수산종묘 및 종패 방류를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박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활기찬 해남, 잘사는 해남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며, “남은 기간도 지금까지 군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룬 해남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가공공장이 집중적으로 유치될 식품농공단지 조성에 나서 내년 중 분양을 앞두고 이미 신당동떡볶이 등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화관광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 3월 우수영~제주 간 패속선이 성공적으로 취항했고, 땅굴권, 두륜산권, 우수영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운선도 유물전시관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나섰다. 올 하반기 완공목표인 녹색미로공원, 내년 상반기 땅굴 순례문화관까지 들어서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 정착, 소통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만 해놓고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30년 이상 방치돼 있는 회원관광단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판로 확보와 유통망 대책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박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활기찬 해남, 잘사는 해남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다”며, “남은 기간도 지금까지 군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룬 해남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정읍시**

명품농산물의 또 다른 이름  
**당풍미인**

깨끗한 물, 넉넉한 햇살,  
내장산 깊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오염되지 않은 동진강의 맑고 풍부한 물!

땅을 지키며 근면함으로  
우리 농업을 굳건하게 지켜온 정읍 사람들

대한민국 1%를 지향하는 준비된 브랜드  
**‘당풍미인’**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빚어낸  
정읍의 대표 브랜드 **‘당풍미인’**

품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더해져  
최고의 농산물을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당풍미인’**

쌀과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까지

**‘당풍미인’**은 정읍시가 모든 역량을 투자해서  
생산한 최고급 농산물입니다.

쌀,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



“블루베리 예약 안하면 못사요”  
지난 24일 오후 해남군 옥천면 김황태(68)씨 부부가 막 수확한 블루베리를 자랑스레 보여주고 있다. 해남 관내 20ha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50t의 블루베리는 예약 직거래를 통해 전량 소비될 정도로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신안 농가 “울고 싶어라”

### 마늘·양파 수확기 겹치고 진드기 공포에 ‘인력난’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 신안지역 농가들이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벼와 마늘·양파 재배면적은 각각 9533ha, 2337ha로, 전체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모내기와 마늘·양파 수확이 일시 중목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목포 등지에서 인력을 구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일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나마도 사람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야생진드기 공포’로 인해 사회단체의 일손 돕기 봉사활동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농가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군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박우람 신안군수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일손 돕기는 물론, 기계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지자체에도 도움을 청하고 자원봉사인력도 직접 섭외하는 등 농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나주시 29일 토요일문화장터

나주시는 25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단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사업 개시와 사업단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함께 ‘들썩썩’ 토요일문화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주시 국악협회의 길놀이 마당을 시작으로 흥겨운 공연과 추억의 주전부리라는 주제로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버들남자와 왕건, 정약용과 정약전 등 나주의 역사인물 포토존, 5일장 시장 물건 펠리행사과 병어경매행사가 진행된다. 또 나주목사고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추천을 통해 세타기, 텔레비전 등 경품도 지급한다.

‘들썩썩’ 토요일문화장터는 주말을 이용해 나주목사고을만의 전통적인 문화공연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 행사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